

코스피	2581.03	코스닥	734.59
	(-18.59)		(-10.60)
금리 (연-5년)	2.891	환율 (원-달러)	1379.25
	(-0.045)		(-2.95)



**대통령실 잔디밭에 떨어진 '빠라'**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방한 공식환영식을 준비하던 중 식장으로 떨어진 북한 쌀포 '쓰레기 풍선' 내용물 추정 빠라(전단)를 치우고 있다. /뉴스시스

## 하이닉스 'HBM' 날개 영업이익 7조 '새 역사'

3분기 매출 17.4조 '사상 최대치' HBM·eSSD 등 고부가 제품 효과 전체 D램 매출서 HBM 비중 30% 주문량 따라 생산... 재고우려 일축

SK하이닉스가 분기 최대 실적을 올리며 초격차 기술의 위용을 뽐냈다.

SK하이닉스는 24일 올해 3분기 매출 17조5731억 원, 영업이익 7조300억 원(영업이익률 40%), 순이익 5조7534억 원(순이익률 33%)을 기록했다고 공식하고 컨퍼런스콜을 진행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8년 3분기 6조 4724억원 대비 1조 원 가까이 늘었다.

〈관련기사 3면〉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 고객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됐고, 이에 맞춰 회사는 HBM, 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며 "특히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330% 이상 증가하는 탁월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 "수익성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늘며 D램 및 낸드 모두 평균판매단가(ASP, Average Selling Price)가 전 분기 대비 10%대 증반올라 당사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는 고수익 제

품인 AI 서버용 메모리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이 이끌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3분기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의 비중은 30%에 달한다. HBM은 범용 D램의 5배에 가까운 가격의 고가 제품으로, 이번 실적에서 EBITDA 기준 마진율은 57%에 달한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SK하이닉스 측은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과거 반도체업계는 D램 과잉 재고로 시장 호황기가 닥친 바 있다. 반면 D램과 달리 HBM은 수요처의 주문량에 따라 생산하는 만큼 재고 우려가 없으며, AI 메모리 수요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오히려 수요 대비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현 SK하이닉스 D램 마케팅 담당(부사장)은 "내년 HBM 수요는 AI 칩 수요 증가와 고객들의 AI 투자의지가 확대되고 있어 예상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는 컴퓨팅 파워의 요구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현 시점에서 AI나 HBM 수요 둔화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HBM3E에 대한 고객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여기에 생산능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고객의 내년 요구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 투자도 집행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수요에 모두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中 반도체 굴기 가속... 韓 정부 파격지원 절실

###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

#### 〈下〉 중국의 추격

CXMT, D램 생산능력 5배 증가 중, 3기 반도체에 64조 기금 투입 맞는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원도

韓, 글로벌 패권 경쟁 승리 위해 세액 직접 환급제·기금조성 등 첨단산업 적극적 투자지원 촉구

"사실 지금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위기다."

삼성전자에서 31년간 시스템반도체 개발,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갤럭시 시 제품 개발에 참여했고, 지금은 교단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김용석 가천대학교 반도체대학 석좌교수(가천반도체교육원장)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대가 지금은 중국"이라며 여야의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직접 보조금과 세액 공제 상향 등

적극적인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빠른 추격이 가장 큰 위기 김용석 석좌교수의 말처럼,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3년 1분기 매출액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D램(DRAM·임시기억장치)에선 약 70%, 낸드플래시(전원이 끊겨도 저장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에선 약 50%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격차를 줄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주요 D램 생산 업체인 창신 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2016년 설립된 비교적 신생업체이지만 2020년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작된 이후 생산 용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 통해 2020년 4월 4만장(웨이퍼 단위)에 그치던 CXMT의 D램 생산수준은 현재 월16만장으로 늘어났고, 올해 말 20만장, 내년엔

30만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생산 능력을 4년 사이 5배 끌어올린 것이어서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비록 구식 메모리 생산 위주이고, 제재로 인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메모리에 뒤처져 있다는 '안심론'이 있지만, CXMT의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미국)에 이은 4위로 거센 추격을 하고 중국 정부는 약 64조원 규모의 3기 반도체 추가 기금을 조성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미·중 같이 파격적인 투자해야" 김용석 석좌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석좌교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중국은 반도체 기업이 적자가 나도 보조금 등으로 메워준다. 사실 우리도 그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서는 산업 진흥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면에 계속)

김용석 석좌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석좌교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중국은 반도체 기업이 적자가 나도 보조금 등으로 메워준다. 사실 우리도 그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서는 산업 진흥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면에 계속)

김용석 석좌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오가노이드 동물용 확장... 최적 치료제 연구"

메트로경제 '제약&바이오포럼'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 '블루오션' 사람 치료제 기반 의약품 개발 속도

인류를 위해 개발되어 온 최첨단 바이오 기술이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람과 함께 살며 사람과 비슷한 병에 걸리지만 수명은 평균 15년에 그치는,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메트로경제신문〉이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사람 위한 헬스케어 기술을 확장한다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이 빠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L4-L5〉

임윤지 VIP반려동물암센터 원장은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화되면 사람과 유사한 질환을 앓고 유사한 사망 원인을 갖게 된다"며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람의 산업으로 연계하기보다, 사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빨리 동물에 적용하는 방향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지엔티파마는 인체용 치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한 이연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장구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네번째부터)과 내빈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지난 2021년 반려견용 치매신약 '제다큐어'의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공개했다.

지엔티파마의 이진환 박사는 "2년마다 진행되는 시판후 테스트에서 8주 결과, 24주 결과 모두 치매 개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현재 1980여 동물병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 치료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반려동물에 맞는 최적의 치료 물질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사람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반려동물용으로 확장 적용하고 있다. 반려동물에서 채취한 조직으로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항암제를 적용해 최적의 치료제를 찾는 방법이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사람의 경우 오랜 시간 임상 사례와 표준화된 시험법이 존재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항암제와 치료제는 전적으로 수의사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어떻게 개선할지가 우리가 풀어나가는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박상우 장관 "디딤돌 대출 규제 완화 선과 불완전 드려 송구" /사진 뉴스시스  
▲ "임대업자나 국회의원이나"... 경실련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 38%

▲ 민주 "윤, 담당하다면 시정연설 나와야... 韓, 자체 특검안 내야"  
▲ 조국 "한동훈, 윤 부부와 결별하라... 마지막 기회"



▲ 이주호, AI 교과서 2026년 이후 도입 계획 '속도조절' 시사 /사진 뉴스시스  
▲ 국회 외교통위 '북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소위 회부